

1989년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

‘사회주의민주’의 구현을 위한 체제 내 민주화 운동*

이흥규**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천안문 운동 직전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
- III. 천안문 운동 시기의 시위대의 요구와 여론
- IV. 소결: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한글초록

올해는 1989년 천안문 운동이 발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9년 천안문 운동은 당시 중국공산당이나 서구 언론이 공히 간주한 것처럼 공산당에 대항한 반체제 운동이 아니었다. 본고는 1989 천안문 운동이 ‘사회주의민주’를 실현하려는 체제 내 민주화 개혁 운동이었음을 주장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1989년 천안문 운동 전후의 중국 내의 여론조사나 국내외 신문기사 등 1차 자료를 최대한 수집, 해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증

*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하남석 교수와 이 논문 초고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해주신 백영서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1989년 천안문 운동을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는 중국공산당 현 지도부의 강경한 해석은 '사회주의민주'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1989년 천안문 운동, 사회주의민주, 체제내 민주화, 중국공산당

I. 들어가는 말

주지하듯이 1919년 5.4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1989년 천안문 운동이 발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는 일찍 1989년 천안문 운동에 대한 보도가 금지되었고 천안문 광장에 대한 경계도 더욱 강화되었다. 천안문 운동에 대한 기억의 유포를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는 듯하다.¹⁾

비록 비공식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2009년 천안문 운동 20주년을 즈음한 시점에서는 천안문 운동 당시 학생들의 입장에 동정적이었던 당 총서기 자오쯔양(赵紫阳)의 회고록이 발표되었고 2010년에는 천안문 운동 진압의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리펑(李鹏) 전 총리의 회고록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²⁾ 후진타오(胡锦涛) 집권

-
- 1) 한 국가의 정치사 연구는 한마디로 기억의 학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사 연구에서 누구의 기억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누가 그 기억을 오늘의 정치에 불러냈는지 혹은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지, 또 어떤 누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지가 정치의 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라는 것이다.
 - 2) 자오쯔양의 회고록은 2009년 자오의 회고록은 천안문 사건 20주년을 맞이하여 홍콩의 신세기(新世紀)출판사에서 <국가의 죄수(The Prisoner of the State/國家的囚徒)>라는 제목으로 영문과 중문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시기로 볼

기에는 천안문 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허용된 것에 비하면, 시진핑(習近平) 집권기인 현 중국 당국의 천안문 운동에 대한 태도는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중국 당국은 1989년 천안문 운동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공산당 기관 통신사인 신화사(新华社)가 2018년 12월에 내놓은 ‘개혁개방 40주년 대사기’의 내용이다. 즉 이 대사기의 1989년 정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천안문 운동의 성격에 대한 현(現) 시진핑 집권기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를 알 수 있다.

“봄과 여름이 교차하던 시기, 베이징과 여타 도시에는 정치적 풍파(政治风波)가 발생하여, 당과 정부는 인민에 의거하여 선명한 기치로 동란(动乱)에 반대하여 베이징에서 발생한 반혁명 폭란(反革命暴乱)을 잠재우고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지켜내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계속 전진하도록 보장했다.”³⁾

그런데 천안문 운동 발발 30년이 지난 오늘날 천안문 운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

때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핑의 회고록은 역시 신세기 출판사에서 〈결정적시기: 리핑의 6.4일기(關鍵時期: 李鵬六四日記)〉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출간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판 3일전 취소되었다. 출판사는 출판 최소 이유가 판권에 관한 법리적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공산당 중앙의 제지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리핑의 회고록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파일이 유포된 상태여서 당시 1989 천안문 운동에 대한 기억을 둘러싸고 논의가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었다.

3) 改革开放四十年大事记,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2/17/c_1123861055_2.htm(검색일: 2019.3.10)

동안 중국 당국은 1989년 천안문 운동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 표현을 써왔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동란’이나 ‘반혁명 폭란’이라는 적대적인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문 운동 20주년을 앞둔 후진타오 집권기였던 2008년 12월 개혁개방 30주기 대사기도 천안문 운동을 ‘정치풍파(政治风波)’로만 표현했던 것과 비교해보아도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적대적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⁴⁾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으로 이는 중국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라는 현재의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전 표명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지난 30년 동안 1989년 천안문 운동에 대한 중국공산당 당국의 기본 입장이 1989년 당시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천안문 운동이 한창이던 1989년 4월 26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천안문 운동을 사회주의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는 계획적인 음모이며 동란으로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한 것으로 당 전체와 전국 각 민족 인민 앞에 놓인 엄중한 정치투쟁이다.”⁵⁾

천안문 운동을 진압한 직후 덩샤오핑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민일보》 4월26일 사설은 문제의 성질을 동란으로 규정하였다. “동란”이란 이 두 글자는 합당한 것으로...그 판단은 정확한 것이다. (중략) 일부 동지들은 문제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단지

4) 胡习两版改革大事记之变, http://news.dwnews.com/china/news/2018-12-18/60106139_1.html(검색일: 2019.3.10)

5) 必须旗帜鲜明地反对动乱, <https://web.archive.org/web/20170429062325/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81/4494004.html>(검색일: 2019.3.11)

군중에 대응하는 단순한 문제라고 본다. 실제 상대는 단순히 구분되지 않는 군중이 아니라 일부 조반파와 대량의 인간쓰레기였다. 그들은 우리 국가를 전복하고 우리 당을 뒤엎으려 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중략) 그들의 근본적 구호는 주로 두 개로, 하나는 공산당 타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제도의 전복이다.”⁶⁾

종합하면, 1989년 천안문 운동이 반사회주의 즉 반체제의 성격을 지닌 폭동이였다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기본 입장이었으며 이는 지난 30년을 거친 오늘날에도 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셈이 됐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후진타오 시기 등 그동안 이러한 적대적 표현이 사라졌던 적이 있었고 대신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날 시진핑 시대 공산당의 1989년 천안문 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은 변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1989년 천안문 운동을 반체제 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국 공산당뿐만이 아니다. 서방 세계 또한 대체적으로 1989년 천안문 운동을 사회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반체제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당시 중국공산당의 무력진압의 야만적 성격을 비판해왔다(Francis 1989; Nathan, 1990; Ruan 1994). 천안문 운동 시기의 일부 자유주의 인물들의 증언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천안문 운동의 실제 상황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낸다. 본고는 천안문 운동에서 나타난 여론은 반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내 민주화 개혁 요구였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천안문 운동 직전 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그 본질이 사회주의 체제 내 민주화를 요

6) 邓小平, 在接见首都戒严部队军以上干部时的讲话(一九八九年六月九日), <http://cpc.people.com.cn/GB/69112/69113/69684/69696/4950037.html>(검색일: 2019.2.20).

구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여론이 천안문 운동까지 지속되었음을 우선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천안문 운동 시기의 정세 변화를 쫓아가면서 천안문 시위대의 요구, 중국공산당 당국의 태도변화, 일반 대중의 여론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결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따라서 당시의 여론조사 내용을 담은 자료나 문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시시각각 취재했던 중국 국내외 신문 기사 등 1차 자료도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II. 천안문 운동 직전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

1. 천안문 운동 직전 중국의 정치상황

개혁개방을 선언한 직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축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아래에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결의에서 상술한 것처럼 이는 단순히 경제적 개혁개방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정치적 개혁개방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중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고도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사회주의 근본 목표와 임무로 규정한다는 것은 중대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가 있다. 과거의 인식은 민주가 수단이고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이해는 편파적인 것이다. 민주는 상부구조로서 결국은 경제적 토대에 봉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의미에서도 목

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는 인민대중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쟁취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이 철저한 해방을 얻기 위한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⁷⁾

당시 중국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역시 자신이 주창하는 ‘사회주의현대화’란 경제적으로도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따라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본주의국가보다 더 민주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⁸⁾ 덩샤오핑은 또한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란 상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현대화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고도 했다(中共中央文献委员会, 1994: 168, 322). 따라서 천안문 운동 직전인 1980년대 중국에서 민주주의의 요구는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도 공감했던 사안이었다. 개혁개방 시기에 이르러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정치체도를 건전하게 확립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체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체도는 해결할 수 없느냐고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⁹⁾

그래서 천안문 운동 직전에 중국공산당이 정치체제 개혁을 주요

7) 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 <http://news.sina.com.cn/c/nd/2016-05-16/doc-ixfsenvn7202369.shtml>(검색일: 2019.3.12).

8)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실천을 현대화의 기반으로 본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적대세력에 대한 무산계급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민주화 역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중국이 견지해야 할 4항 기본원칙의 천명 즉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선언한 것이다. (에즈라 보겔, 2014: 360)

9) 邓小平, 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 <http://cpc.people.com.cn/GB/69112/69113/69684/69695/4949714.html>(검색일: 2019.3.12).

의제로 다루었던 1987년 제13차 당대회는 민주정치의 건설 목표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13차 당대회는 당정분리의 실행, 권력의 하방, 정부공작기구의 개혁, 간부인사제도의 개혁, 사회협상제도의 건립, 사회주의민주 정치제도의 완성과 개선, 사회주의법치 건설의 강화 등 공산당 당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정치체제개혁 구상을 제시하였다.¹⁰⁾ 하지만, 본래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지휘 아래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공산당 당내에서 준비되어 온 정치개혁 방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기에 13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계획은 당시 중국인들이 기대했던 민주화 정치개혁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실제 1980년 10월 전국 당교 계열의 중공당사 학술토론회에서 중공당사 연구자였던 랴오가이룽(廖蓋隆)이 보고한 이른바 경신개혁(庚申改革)안에 따르면, 이미 후야오방 중심의 당내 개혁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방안이 촘촘히 준비되어 있었다.¹¹⁾

예컨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서구의 의회제와 유사하게 개혁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당의 간섭을 배제했으며 노동조합 역시 독립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했고 농민들은 독립적인 농민협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군중단체에 대한 당의 통제를 배제하였다. 당 중앙정치국을 폐지하고 당중앙을 중앙집행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

10) 赵紫阳, 沿着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道路前进——在中国共产党第十三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cpc.people.com.cn/GB/64162/134902/8092174.html>(검색일: 2019.3.13).

11) 冯崇义, 赵紫阳在1989年的思想飞跃, https://blog.boxun.com/hero/201705/fcy/13_1.shtml(검색일: 2019.3.13).

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호 견제 감독하도록 개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당 제1서기를 폐지하고 각급 당위원회의 결정은 1인1표로 이루어지고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했다(廖蓋隆, 1981: 107-177).

이렇게 보면, 경신개혁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민주’ 개혁방안 즉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치개혁방안이었고 당내 개혁파와 예젠잉(叶劍英)등 일부 당내 원로, 민주당파, 중국 지식인과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등 당시 중국 인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당내 보수파와 덩샤오핑(鄧小平)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내 보수파와 덩샤오핑은 이러한 경신개혁이 ‘당의 영도’ 즉 공산당의 통치권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1980년대 내내 중국공산당은 정당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비록 개혁개방의 성과로 중국공산당의 업적은 재고되었지만 공산당의 권력독점 하에서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관료부패의 급증과 빈부격차의 확대에 의해 중국공산당의 업적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2. 1980년대 중국 인민들의 정치적 여론

실제 인민들의 불만은 개혁개방 직후에도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에 집중되어 있었다. 1979년과 1980년 상하이 푸단대(復旦大) 학생들에 대한 2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55%의 응답자가 중국공산당 간부의 특권이라고 대답하였다(『Time』 November

12) 冯崇义, 趙紫陽在1989年的思想飛躍, https://blog.boxun.com/hero/201705/fcy/13_1.shtml(검색일: 2019.3.13).

10, 1980: 49).

그 이후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중국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은 여전히 당내의 부패 현상, 사회풍기의 문란, 관료들의 탐오와 범법행위 등 관료부패에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당시 중국 도시의 여론을 보면 사회안전 방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가 관료의 탐오와 뇌물거래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6.1%에 달하였고 정치생활 방면에서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당풍의 부정이 63%, 사회풍기 문란이 55%를 각각 차지하였다(朱庆芳, 1989: 8-9). 중국 농촌에서도 농촌간부에 대한 불만이 점증되고 있었고 소요도 빈번하게 발생했다(江振昌, 1990).

따라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았다. 아래의 <표1>에서처럼 1980년대 후반의 공산당에 대한 좋은 여론보다는 나쁜 평가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중국공산당에 대한 평가: 인민의 마음속에 있는 인상(조사기점 1987)

구분	좋 다(%)	나쁘다(%)	표본(개)
전체	30.26	61.98	1,419
노동자	41.67	50.38	263
개체노동자	37.09	51.62	125
지식인	22.68	69.85	371
간부	28.48	68.81	305
농민	28.13	58.90	324

출처: 闵琦, 1985, 『中国政治文化』, 云南: 人民出版社, p125

반면에,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자층에서는 학생운동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1986년 학생운동이 발

생했을 때도 중국 지식인의 66.9%가 우호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당시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闵琦, 1985: 125). 더욱이 도시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33.3%의 응답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대답하는 등 대중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났다(朱庆芳, 1989: 10). 1980년대에 중국 도시에서 민주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1986년의 경우, 각지에서 실시된 인민대표 선거에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고조되었고 12월 초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의 대학생들은 민주화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베이징과 상하이로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왕단, 2014: 361).

그렇다면, 당시 학생들은 당시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 일단, 학생들은 1989년 천안문 운동 직전까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1986년에 베이징대(北京大)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6%만이 11기3중전회 즉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49.7%는 진전은 있었으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5.6%는 아예 진전이 없었다고 대답했다(王福春·呈晓健, 1989: 28).

그렇다면 당시 중국 대학생들의 민주주의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을까?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당시 중국 학생들의 민주 관념은 서구적인 관념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당시 허난대(河南大)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중국 대학생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민주주의 요소로 ‘법치’, ‘청렴결백한 정부’, ‘기회의 평등’과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선거’, ‘분권과 제약’, ‘다당제’ 등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집중제’나 ‘다당합작제’와 같이 중국의 공산당 일당 지배 하에서 당연시되는 원리를 민주주의 요인 중 하나로 인정하기도 한다(张涛, 1989: 18).

당시 베이징대 학생들의 민주 관념 역시 복잡하다. 당시 베이징대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서 79.3%가 미국을 선택했고 이밖에 프랑스, 영국, 유고, 리비아, 일본, 중국 순으로 민주주의의 순위를 꼽고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중국보다 앞서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반면에 이들은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의 시각에서 ‘민주’ 관념을 바라보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예컨대 ‘민주가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2%가 동의하였고 ‘민주란 여러 정당이 돌아가며 집권하는 것인가’ 혹은 ‘민주와 독재는 대립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각각 77%와 74.7%를 차지하는 등 앞선 응답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였다(王福春·呈晓健, 1989: 27-28). 이는 당시 중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매우 보편적인 요소를 중시하면서도 사회주의적 특징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곳은 중국사회주의가 아니라 서구자유주의 체제임을 인정한다. 당시 청년들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를 대개 수용하면서도 현실 사회주의 보다는 서구 자유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중국 인민대표들에 대한 당시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인민대표들 역시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급 인민대표들인 베이징시의 구(區)인민대표들의 경우 “인민이 언론자유를 사상을 선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을 표시한 비율이 71%에 이른다.

또한 이들은 ‘대학생이 정부의 현행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경우, 공안국은 대학생들을 체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반대’를 선택하고 있다(胡杰, 1988: 22).

그렇다면, 천안문 운동 직전까지 1980년대의 이러한 여론이 천안문 운동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을까? 아니면 변화가 있었을까?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천안문 운동 시기 시위대의 민주화 요구 내용과 당시 시위대 참여자와 이를 지켜본 중국 인민들의 여론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III. 천안문 운동 시기의 시위대의 요구와 여론

〈그림 1〉 천광(Chen Guang)의 ‘바람’



자료: 경남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 〈아시아 인 아시아-가깝고 먼 북소리〉(2019.2.15.-5.12)

이 그림은 천안문 운동 당시 인민해방군 군인 신분으로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천광(Chen Guang)이 천안문 광장에서 반대편 천안문 운동 참여자들의 모습을 그린 것¹³⁾으로 천안문 운동 시기의 실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즉, 천안문 운동 당시 시위대와 군경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천안문 운동 초기의 언론 기사를 보면, 군경은 시위대의 시위 행위에 간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홍콩 언론 쾌보(快報) 1989년 4월17일자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대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시위에 북경시와 상해시 당국이 전혀 간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천안문 광장에 나와 있는 공안도 많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快報 1989年 4月17日). 결국 최소한 천안문 운동 초기 상황에서 보자면 천안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군경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었고 시위대의 외침을 군경이 적대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1989년 천안문 운동은 1986년 학생시위에 대한 미온적 처리와 정치개혁 추진 등으로 당내 원로 및 보수파와 대립하였다가 물러난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애도 집회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 당내 개혁파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대표자라 할 수 있었던 후야오방의 죽음을 명분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공산당 당국에 민주화 정치개혁을

13) 이 그림은 경남도립미술관의 기획전시회 〈아시아 인 아시아 - 가깝고 먼 북소리〉(2019.2.15-5.12)에 전시된 중국 작가 천광의 '바람'이라는 작품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군에 입대했던 천광은 당시 천안문 시위의 초기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군의 일원으로서 천안문 운동의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림으로 남겼다.

요구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천안문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민주’와 ‘자유’의 쟁취를 외쳤고 ‘반(反)부패’와 ‘반(反)관료주의’를 외치면서 노동자들의 참여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학생들은 중국공산당이 당시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나 폴란드의 민주개혁을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東方日報 1989年 4月20日; 香港時報 1989年 4月20日).

예컨대, 4월21일 베이징대학교, 런민대학교 등 대학교정에 붙여진 바오쑤신(包遵信), 베이다오(北島), 쑤샤오캉(苏晓康) 등 작가 47명이 서명한 <당 중앙, 국무원, 인민대표대회에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도 천안문의 시위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후야오방의 유지를 받들어 중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 둘째, 관료부패의 척결과 사회적 불공정의 해결, 셋째, 각급 정부의 목표 책임제 실시 등 정부 효율의 제고, 넷째,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보장 및 대중매체의 여론 감독기능 보장 등이다(왕단, 2014: 366-367).

1989년 4월 22일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계기로 천안문 광장에 모여든 인파가 40만에 이르는 등 열기가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4월26일 중국공산당 당국이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하여 천안문의 시위를 계획적인 음모이며 동란으로 규정하고 그 본질을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자 시위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더욱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전략을 바꾸어 오해를 살만한 급진적인 구호나 요구는 취소하였고 심지어 ‘당과 정부를 옹호한다’,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趙鼎新, 2007: 125).

또한 천안문 광장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적이었다. 시위대

지도부는 정부의 전복을 외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실수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와의 토론과 협상을 요구하였다(김정환, 2010: 99).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반체제 운동이 아니라 ‘애국적 민주’운동임을 인정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4월 27일 중국 정부 대변인이 시위 학생들과의 대화를 암시한 이래 5월 초까지 중국 당국은 시위 학생들과 몇 차례의 대화를 가졌고 학생들과의 긴장된 대치관계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5월4일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날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는 학생 시위의 기본 구호가 ‘중국공산당 지지’, ‘사회주의 지지’, ‘개혁 옹호’, ‘민주 추진’ 그리고 ‘부패 반대’ 이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은 ‘결코 우리의 기본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문 학생 시위를 공산당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부정한 동란 즉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한 인민일보의 4월26일 사설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趙鼎新, 2007: 126-128). 최소한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천안문 학생 시위를 반체제 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체제 내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13일 단식이 시작되자 중국 정부는 신속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공산당 중앙통전부는 학생 지도부와 지식인들과 긴급회의를 요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趙鼎新, 2007: 133-136). 천안문 운동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가량 지난 5월 17일 전후의 상황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천안문 운동을 민주적 시위로 여겼고 중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가 천안문 광장 주변에서 중국 인민 500명을 대상으로 천안문 운동의 성격을 묻는 여론 조사가 즉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 이상이 천안문 운동을 ‘애국민주운동’이

라고 대답했고 향후 전망도 58%의 응답자가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¹⁴⁾

또한 당시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완리(万里)는 천안문 운동을 애국적 민주운동으로 인정하는 담화를 인민일보를 통해 전했다. 즉 그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민주화 운동이다. 개혁 개방 이후 10년 동안 국민 총생산은 두 배 증가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정치 개혁의 속도는 좀 느린 상태로 민주주의 발양이 충분치 않고 대중의 감독도 충분치 않다. 현재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이 민주를 요구하고 부패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개혁을 가속화하는 애국적 행동이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5월20일 계엄령이 공포된 후에도 천안문 광장의 운동 지도부는 자신들의 운동을 학생과 대중들의 자발적인 애국적 민주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 내부의 정치투쟁이 야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당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지도부 가운데 민주화 지지 세력이 있음을 거명하고 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당시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칼훈(Calhoun)은 천안문 광장의 현장에서 시위 참여 학생들과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하여 천안문 시위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14) 피경훈, 15년전 중국 학생들은 무엇을 외쳤나. 당시 중국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보는 톈안먼 사건,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89969#cb(검색일: 2019.3.10).

15) 이는 계엄령 이후 왕단(王丹), 우얼카이시(吾爾開希)등 학생지도부가 잠적하기 전에 발표한 내용으로 이들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민주적 애국주의에 대한 태도를 통해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리펅 등이 민주적인 학생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비난하고 자오쯔양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보였다. (Calhoun, 1994; 241-242.)

을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 학생들은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으로 정확한 뉴스보도(89%), 표현의 자유(83%)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학생 응답자의 68%가 자유선거를 꼽고 있으나 이는 정부 지도자의 정기적인 교체를 통해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당제나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한다. 학생운동의 목적에 대한 설문 조사에 있어서도 부패 척결이 가장 많은 비율(71%)을 차지했고 정확한 뉴스 보도(69%), 표현의 자유(51%), 지식인에 대한 존중(46%), 중국의 현대화에 기여(35%), 자유선거(33%), 고위 정부 관료의 교체(31%), 경제발전(21%), 결사의 자유(1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중국 인민들도 학생운동의 목적이 부패 척결에 있다고 보는 비율이 82%나 되었고 관료의 부당 이익 저지(59%), 정확한 뉴스 보도(50%), 지식인에 대한 존중(48%), 표현의 자유(46%), 고위 정부 관료의 교체(38%), 중국의 현대화에 기여(30%), 가격인상 종식(30%), 경제발전(28%), 자유선거(25%), 임금인상(14%), 결사의 자유(8%) 등으로 나타났다(Calhoun, 1994: 243-248).

5월23일 천안문 운동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에피소드가 발생한다. 천안문 마오쩌둥 초상화에 페인트를 뿌리고 성루 벽에 ‘독재 종식’, ‘개인숭배 종식’ 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후난성 출신의 세 청년을 천안문 운동 학생들이 붙잡아 공안에게 넘긴 것이다. 또한 6월3일 베이징으로 들어온 인민해방군은 대부분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는데 시위 군중들은 일부 무기를 휴대한 인민해방군의 무기를 빼앗아 역시 공안에 넘겼다. 또한 당시 인민해방군과 시위 군중들은 대치하면서도 경쟁하듯이 노래를 불렀는데 ‘공산당 없이는 신중국도 없다’ 등의 사회주의 혁명가였다. 이 같은 에피소드들은 당시 천안문 운동 학생들이 당국에 탄압의 구실을 줄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반체제 운동이었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다(Gordon and Hinton, 1995).

IV. 소결: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의 중국에는 이미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사회주의체제의 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의 성격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과 자유주의적 영향이 함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중국 인민이나 학생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의 중국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공산당은 공산당의 영도 즉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사회주의민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경신개혁안에서 보듯이 공산당의 영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도 최대한의 민주개혁 방안도 설계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영도 하의 최대한 민주개혁 방안은 당내 보수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중국 인민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측면이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문제도 그 배경이 되었겠지만 당시 매우 심각했던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 문제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천안문 운동이 중국공산당의 정당성 위기 국면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료 부패의 척결이 천안문 운동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관념은 여전히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의 범주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왕후이, 2003:

110).

물론 천안문 시위의 학생들이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하자면,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주창했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애국적 민주주의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혁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이다. 따라서 천안문 운동을 사회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중국공산당의 평가나 서구사회의 인식은 공히 잘못된 것이다. 천안문 운동은 반체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체제내 민주화 개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¹⁶⁾

천안문 운동 직후에도 개혁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민주’의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 1990년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3대 도시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신문보도 중 비판의 제한 및 금지가 너무 많고 경직화되어 있다고 답한 자가 응답자의 85% 이상에 이른다. 또한 당시 신문보도, TV 등의 언론의 진실성을 묻는 질문

16) 이와 관련하여 천안문 사건에 참여했던 중국 지식인들이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천안문 사건을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측면은 또 다르게 흥미로운 측면이다. 즉, 천안문 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자, 신좌파, 민주적 사회주의자 등으로 분화되어 자유민주주의 운동, 반신자유주의 운동 및 계급투쟁, 사회주의적 민주 운동으로 각기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하남석, 2016, 『1989 천안문 사건의 비판적 재해석 - 중국 지식인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논문. 본고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시각이 비교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천안문 민주화 운동 당시의 체제 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에 비하여 이후 이러한 분화가 나타난 것은 각 지식인들을 둘러싼 또 다른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제라고 하겠다.

에서 응답자의 80%가 중국 언론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가업무에 대한 보도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투명도가 낮거나 극도로 부족하다는 입장이 응답자의 65.5%에 이른다. 또한 당시 간행물, TV, 출판에 대한 당의 일원화된 영도 즉 당의 언론 통제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응답자가 88%나 되는 상황이었다(徐理敏, 1990: 29). 언론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민주 권리에 대한 당시 중국 인민들의 요구는 천안문 운동 직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셈이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989 천안문 운동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민주’ 운동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1956-1957년 ‘쌍백운동’ 당시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 1966년-1969년 문화대혁명 초기의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 1974년 리정티엔(李正天) 그룹의 대자보 사건, 1976년 4.5 천안문운동과 1978-79년 민주 벽 운동 당시의 참여자들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역사적 흐름 위에서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들이 ‘사회주의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이다.¹⁷⁾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등장한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본인이 자유주의자임을 내세운 인물 등을 제외하고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주창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민주’의 범주 안에서 요구되고 있다.¹⁸⁾ 더욱이 자유주의자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17)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민주’ 운동에 대한 정리는 각각 다음을 참고하라. 이흥규, 2014.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와 영향”, 『중소연구』 38(4), pp.123-155.; 이흥규, 2017, “‘중국식 민주’의 역사적 형성과 의미: ‘사회주의민주’의 수용과 왜곡 사이에서”, 『동아연구』 36(2), pp.1-45.

18) 중국의 대표적인 소장 정치학자인 허정커(何增科)의 구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선거민주주의, 자유민

민주'가 중국의 현실적인 민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도 한다.¹⁹⁾ 2000년대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공산당은 민간의 활발한 '사회주의민주' 논의에 호응하여 2005년 중국 정부로선 처음으로 이른바 백서를 발표하여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²⁰⁾

그러나 주지하듯이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공산당은 확연히 과거에 비해 특별한 정치개혁의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다. 2018년 초 헌법수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필자는 “중국공산당의 통치 체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이를 막고자 추진하는 시진핑(习近平)의 강력한 독재가 오히려 중국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일갈했던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의 공산당 체제 붕괴 주장(Shambaugh 2015)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진핑 시대는 개혁개방 이후 40년의 역사에서 체제내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이 퇴조하고 나아가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간 '퇴행의 시대'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시진핑 시대는 민주적 사회주

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 다원적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으로 민주화 담론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는데 이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 즉 '사회주의민주'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의이다. (何增科, 2008: 81-84)

19) 중국의 자유주의자 가운데 '사회주의민주'를 현실적인 중국 민주 목표로 설정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쉬여우위(徐友渔), 차오쓰위안(曹思源) 등이 있다. (이종화·장윤미, 2012)

20)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民主政治建设(全文), http://www.gov.cn/zwggk/2005-10/19/content_79539.htm(검색일: 2019.3.20)

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도 ‘1989 천안문운동’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 변화 여부는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 성격을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천안문 운동에서 나타났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민주’ 요구가 후 진타오 시기에 ‘정치풍파’라는 다소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되었던 데 반해서 시진핑 시기에 이르러 다시 반체제 운동이라는 의미의 ‘동란’과 ‘반혁명 폭란’이라는 표현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 江振昌, 1990, 「중국농촌의 간부와 대중과의 관계」, 『공산권연구』, 2월호.
- 김정한, 2010, 『대중운동의 이미지-5.18 광주항쟁과 6.4 천안문운동의 비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에즈라 보겔, 심규호·유소영 옮김, 2014, 『덩샤오핑 평전』, 서울: 민음사.
- 왕단, 송인재 옮김, 2014, 『왕단의 중국현대사』, 서울: 동아시아.
- 왕후이, 이옥연·차태근·최정섭 옮김, 2003,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서울: 창비.
- 이종화·장윤미, 2012, 「중국 정치개혁에 관한 자유주의 논의의 비교 연구」, 『중소연구』, 제35권 4호.
- 이흥규, 2014,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와 영향」, 『중소연구』, 제38권 4호.
- 이흥규, 2017, 「중국식 민주주의의 역사적 형성과 의미: ‘사회주의민주주의’의 수용과 왜곡 사이에서」, 『동아연구』, 73집.
- 하남석, 2016, 『1989 천안문 사건의 비판적 재해석 - 중국 지식인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논문.
- 피경훈, 2004, “15년전 중국 학생들은 무엇을 외쳤나-당시 중국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보는 톈안먼 사건”, 『오마이뉴스』 2004년 6월 4일 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89969#cb(검색일: 2019.3.10).
- 何增科, 2008, 「民主化: 政治发展的中国模式与道路」, 俞可平(编), 『中国学者论民主与法治』, 重庆: 重庆出版社.
- 胡杰, 1988, 「北京市区人大代表的政治动机和公民意识调查」, 『政治学研究』, 3期.
- 廖蓋隆, 1981, 「歷史的經驗和我們的發展道路」, 『中共研究』, 15(9).
- 闵琦, 1985, 『中国政治文化』, 云南: 人民出版社.
- 王福春·呈晓健, 1989, 「关于北京大学学生民主意识的调查报告」, 『政治学研究』, 1期.

- 徐理敏, 1990, 「民意调查反映民心, 党报不可信」, 『争鸣』, 11号.
- 张涛, 1989, 「大学生谈民主认知, 情感与评价」, 『政治学研究』, 4期, p18.
- 趙鼎新, 2007, 『國家-社會關係與八九北京學運』,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朱庆芳, 1989, 「1988年城市职工心态路」, 『瞭望』 1989年1月9日.
-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 1994, 『邓小平文选』, 2卷, 北京: 人民出版社. “必须旗帜鲜明地反对动乱”, 『人民日报』, 1989.04.26., <https://web.archive.org/web/20170429062325/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81/4494004.html>(검색일: 2019.3.10).
- “改革开放四十年大事记”, 『新华网』, 2018.12.17.,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2/17/c_1123861055_2.htm(검색일: 2019.3.10).
- “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 『新浪网』, 2016.5.16., <http://news.sina.com.cn/c/nd/2016-05-16/doc-ifxsenvn7202369.shtml>(검색일: 2019.3.12).
- “胡习两版改革大事记之变”, 『多维新闻』, 2018.12.21., http://news.dwnews.com/china/news/2018-12-18/60106139_1.html(검색일: 2019.3.10).
- 「北京學生「悼胡」大遊行, 今晨六天人操往天安門」, 『快報』, 1989.4.17.
- 「京滬學生盛大示威, 力爭民主呼籲肅貪」, 『東方日報』, 1989.4.20.
- 「學生籲工人加入, 同爭取民主自由」, 『香港時報』, 1989.4.20.
- 邓小平, “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一九八〇年八月十八日)”, 『邓小平纪念网』, 2006.10.24., <http://cpc.people.com.cn/GB/69112/69113/69684/69695/4949714.html>(검색일: 2019.3.12).
- 邓小平, “在接见首都戒严部队军以上干部时的讲话(一九八九年六月九日)”, 『邓小平纪念网』, 2006.10.24., <http://cpc.people.com.cn/GB/69112/69113/69684/69696/4950037.html>(검색일: 2019.2.20).
- 冯崇义, 2011, 「趙紫陽在1989年的思想飛躍」, 『博訊博客-公民论坛-冯崇义文集』, 2011.6.4., https://blog.boxun.com/hero/201705/fcy/13_1.shtml(검색일: 2019.3.13).
- 赵紫阳, 「沿着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道路前进——在中国共产党第十三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一九八七年十月二十五日), 『中国共产党新闻网』, 2008.

- 9.23, <http://cpc.people.com.cn/GB/64162/134902/8092174.html>(검색일: 2019.3.13).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中国的民主政治建设 (全文)”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05年10月19日, http://www.gov.cn/zwgk/2005-10/19/content_79539.htm(검색일: 2019.3.20)
- Calhoun, Craig, 1994, *Neither gods nor emperors: student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rancis., Corinna-Barbara, 1989, “The Progress of Protest in China: The Spring of 1989,” *Asian Survey*, 29(9), pp.898-915.
- Nathan., Andrew J., 1990, *China's Crisis: Dilemmas of Reform and Prospects for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2015, “The Coming Chinese Crackup,” *Wall Street Journal*, 2015.03.06.
- Ruan, Ming, 1994, *Deng Xiaoping: Chronicle of an Empire*. Boulder, CO: Westview Press.
- November 10, 1980, “What Students Believe In,” *Time*.
- Gordon, Richard and Carma Hinton, 1995, *The Gate of Heavenly Peace* (documentary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_8IjXxARnE(검색일: 2019.3.1.)

The Nature of the Tiananmen Movement in 1989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Pro-democracy Movement within the Socialist Regime

Lee Hong Gyoo(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 Studies, Dongseo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insists that Tiananmen movement in 1989 was not rebellious to CCP, even i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Western medias all had regarded as an dissident movement. This paper claims that it means pro-democracy movement within the socialist regime to realize 'the socialist democracy'. I proved this claim objectively by Utilizing as much primary data as possible, such as opinion polls in China and newspaper articles around the period of 1989 Tiananmen movement. In conclusion, the strong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CP leadership, which defines the 1989 Tiananmen Movement as an anti-regime movement,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reform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democracy" has decreased.

Key Words

1989 Tiananmen movement, socialist democracy, Pro-democracy within the socialist regime, CCP